

五常에 관한 연구

梁承二*

【 차례 】

- I. 序論
- II. 五常
 - 1. 仁
 - 2. 義
 - 3. 禮
 - 4. 智
 - 5. 信
- III. 結論

【 국문초록 】

본고는 유교의五常의 의미를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상은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道理이다. 이 도리는 유교의 오륜과 같은 의미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윤리이다. 오늘날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오상의 덕목과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큰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효제·충신과 예의·염치를 알고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큰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면 “仁을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인가?”라고 한 공자의 말과 같이, 仁

* 고려대학교 강사

義를 실천해 나간다면 바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군자의 나라로 불릴 것이다. 아무튼 국민들은 분발하여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대동세계와 천하태평을 이루려고 기약한다면 남북통일도 얼음 녹듯이 자연히 이루어 질 것이다. 땅의 동서와 時의 고금과 인의 흑백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오상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이것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에 불과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효·제·충·신·예·의·염·치’ 여덟 개를 잃어버린 사람을 忘八하는 것으로 큰 치욕이다. 이처럼 유교의 오상은 동아시아적 가치와 정신문화로 인류 보편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인의예지와 수기치인은 문명출돌, 환경파괴, 인권유린 등의 거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지역갈등, 빈부격차, 노사문제, 교육문제 등의 미시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오상, 인, 의, 예, 지, 신, 인의.

I. 序論

본고는 儒家의 五常을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檀·箕 이래로 “仁人, 不死之國”이라 일컬어 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仁과 오상에 대하여 일찍이 국가의 이념으로 삼아 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中國失禮를 求之四夷”란 공자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大連·小連에서 말이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태학을 세우고 또 그 뒤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2년에 국학을 세웠다. 학과목은 『춘추좌전』·『모시』·『논어』·『효경』 또

는 『상서』·『논어』·『효경』·『문선』으로서 가르쳤다고 하였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인과 오상에 대하여 벌써 오래전부터 가르쳐 온 셈이다.

그 뒤 고려에 이르러서는 태조 13년에 정약의 요청에 의하여 평양에 학교를 세우고, 아래로 와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태조 초년에 지금의 서울 송교방(명륜동)에 태학을 세웠다. 조선조는 고려 충렬왕 때 안문성공이 처음으로 程朱의 학문인 성리학을 수입하였는데 그 학문을 이어받아 조선의 성리학이 크게 발전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오상의 도를 밝히는 학자가 배출하게 되었는데 그 오상은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강조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오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에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의 인성 교육인 五倫과 五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인성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한 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성 교육으로서의 오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도덕과 교육차원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 효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측면으로 五常의 道德的 性格을 살핀¹⁾ 것이 있지만, 유가의 오상에 대해 개념의 어원, 의미, 관련 역사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서술되지 못했다. 그 외에도 천성지친인 부자유친과 부부유별, 경전 및 기타 문헌에 나타난 오류 차서,

1) 이현창, 「오상의 도덕교육적 성격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논문, 2002, 1-106쪽.

부부유별을 앞세운 경전들을 통해 三綱五倫의 次序 先後를 논한 것²⁾과 五倫과 三綱의 意味를 살핀 것³⁾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오상을 살핀 것이 아니다. 물론 본고에서 五常과 五倫의 역사적 영향관계나 그것이 현대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도 함께 고찰해야 마땅하지만 여기서는 인의예지신 오상에 대한 정의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개념의 어원과 의미, 역사를 통해 구체적 확대적으로 분석·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五常

오상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어느 것이 정당성을 얻었는가에 대한 문제에 이르러서는 속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고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는 인간의 덕성 내면에는 인의예지신이라는 오상의 덕성을 본래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보는 것이다. 『한서』 「동중서전」에 말한 바 “인의예지신이니 이 오상의 도리는 임금이 된 자가 마땅히 修飾하여야 할 것이다⁴⁾”라고 언급했고, 『백호통』 「성정편」에서는 “오상이란 무엇인가, 인의예지신을 이름이다⁵⁾”라고 언급했다. 『소학』 「감주성리류오상」에서는 “인의예지신이다⁶⁾”라고 말한다고 했다. 또 그와 관련된 출전을 들면 『송

2) 金時晃, 「三綱五倫 次序 先後論」, 『東洋禮學』, 東洋禮學會, 2008, 125-143쪽.

3) 우준호, 「五倫과 三綱의 意味에 대한 考察」, 『中國學論叢』18집, 2004, 403-424쪽.

4) 『漢書』, 「董仲書傳」, “仁·義·禮·智·信, 五常之道, 王者所當修飾也.”

5) 『白虎通』, 「性情」, “五常者何, 謂仁·義·禮·智·信也.”

6) 『小學』, 「紺珠 性理類 五常」, “仁·義·禮·智·信.”

서』 「사령운전론」에서 “백성은 천지의 영기를 타고나 오상의 덕을 내포한다”⁷⁾라고 했으니 이로 볼 때 오상이란 것은 사람의 내면에 선천적으로 갖추고 나온 덕성으로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이치, 도리, 덕성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견해를 알 수 있다.

둘째는 사람은 언제나 행하여야 할 다섯 가지 바른 행동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五典·五品·五倫 등과 같이 해석하는 편으로 인간의 다섯 가지 행하여야 할 당위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상서』 「순전 신휘오전」에 말한 바와 같이 “오전이란 오상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니,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인자하고 형은 우애하고 동생은 공손하고 아들은 효도한다”⁸⁾라고 하였다. 공영달도 『십삼경주소』 「상서편」에서 “오상이란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인자하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고 아들은 효도한다”⁹⁾라고 똑같이 말했다. 『예기』 「악기」에는 “생기의 和를 합하여 오상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¹⁰⁾라고 했다. 이 글의 주에서, “오상은 오행이다”¹¹⁾라고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생기의 和를 합하여 인정에 도달하는 것이 오상의 행동이다”¹²⁾라고 했다. 앞에 것은 性理 면에서 말한 반면에 뒤의 것은 性行 면에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오상의 행동에 있어서도 두 가지 주장이 있다.

7) 『宋書』, 「謝靈運傳論」. “民稟天地之靈, 含五常之德.”
 8) 『尚書』, 「舜典 慎徽五典」. “五典, 五常之教,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
 9) 『十三經註疏』, 「尚書篇」. “五常,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
 10) 『禮記』, 「樂記」. “含生氣之和, 道五常之行.”
 11) 위의 책, 「樂記」. 동주에 “五常, 五行也.”
 12) 위의 책, 「樂記」. 동소에 “合生氣之和, 道達人情, 以五常之行.”
 13) 양승이, 『한국의 상례』, 한길사, 2010, p. 22~23.

하나는 발전 과정으로 볼 때 먼저 시행된 원시적인 윤리이다. 『좌전』의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인자하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고 아들은 효도한다”¹⁴⁾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발전 과정으로 볼 때 그 보다 나중에 나온 윤리이다. 맹자가 말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으며 임금과 신하는 의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는 구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으며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¹⁵⁾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앞의 주장을 찬성하는 사람으로는 書孔傳, 司馬遷, 應邵, 鄭玄, 孔穎達 등이고, 뒤의 맹자의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으로는 淮南子, 劉向, 朱子, 蔡沈, 王陽明 등이 있다. 그런데 군신이라든가, 부자라든가 하는 상대적인 인륜을 합해서 그 상대간의 덕을 제정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보아 약간 후대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좌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康誥」 등에는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고 아들은 공경하지 않고 형은 우애하지 않고 동생은 공손하지 않아서 서로 미치지 못한다”¹⁶⁾라고 『좌전』 희공 33년 조에 나와 있으므로, 그것을 舜典의 해석으로 칠 때에 역시 『좌전』의 주장이 좀 더 옛날 것에 가까운 것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주장들은 발전 과정으로 볼 때 앞의 『좌전』의 說이 옳다고 보는 것은 고대사회에는 가정윤리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윤리로 발전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인자하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고 아들은 효도 한다”란 것은 부모와 형제, 자식은 가족임으

14) 『좌전』.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

15) 『맹자』.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16) 『書經』 「康誥」. “父不慈, 子不祗, 兄不友, 弟不共, 不相及也.”

로 한 가정의 윤리이다. 반면에 맹자는 부모와 형제, 자식 등의 가정윤리로부터 확대하여 동질적인 것을 미루었으니, 부자의 윤리를 확대하여 군신으로, 형제의 윤리를 확대하여 장유의 윤리로 발전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으며 임금과 신하는 의가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으며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사회 발전상으로 고찰하여 볼 때 맹자의 주장은 합리성이 있고 또 오래도록 시행되어 온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말을 덧붙인다면 『좌전』의 ‘아버지는 의롭고 아들은 효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책임과 의무가 병행되는 것으로 待對 관계에서 이루어진 윤리이며, 또 맹자가 주장한 부자유친과 군신유의란 ‘친’, ‘의’는 전자와 달리 ‘친’, ‘의’ 그것을 가지고 양자가 같이 하나의 ‘親’ 자로 윤리를 연결해 놓은 것으로 상호 관계의 윤리로 보아야 되는 것이다. 아무튼 협의적인 것이나 광의적인 것이나 이것은 인간 윤리의 발전상에 있어서의 문제이므로 그리 문제시 할 것은 못 된다고 본다.

1. 仁

조선 초기부터 권근, 길재, 김굉필, 조광조, 서경덕, 이언적 등 여러 학자들이 宋學을 이어받아 仁과 明德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면서 主理·主氣의 학설을 주장하였다. 그 뒤 仁에 대한 논설을 퇴계 이황은 주리론을 근간으로 전개한 반면 율곡 이이는 주기론을 근간으로 논설을 펼쳤다. 이황은 『성학십도』에서 仁에 대해 주리론으로 第1圖 太極圖說로부터 第10圖 夙興夜寐箴에 이르기까지 해설을 하였다. 아래에서 일곱째 그림 仁說圖를 보기로 한다.

주자가 말하기를 “인이란 하늘과 땅이 물건을 낳는 마음인데 사람이 얻어서 마음으로 한 것이다. 아직 發하기 전엔 네 덕이 갖추어져 있다. 仁만이 네 덕을 포괄한다. 그러므로 함육이 혼전하여 통섭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이른바 生의 性이고 愛의 이치이고 仁의 體이다.”¹⁷⁾

여기서는 仁의 개념을 生·愛·體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인의 體를 말했다. 또한 “이미 發한 즘에 四端이 나타난다. 오직 惻隱만이 사단을 꿰뚫는다. 그러므로 두루 꿰뚫어 통하지 않는 데가 없으니 이른바 性의 情이고 愛의 發이고 仁의 用이다”¹⁸⁾라고 하여 인의 用을 말했다. 결국 인의 體用性을 언급한 것이다. 또 “專言하면 未發은 體이고 已發은 用이다. 偏言하면 인은 체이고 측은은 용이다”¹⁹⁾라고 한 것도 體用性을 언급한 것이다. 또 좀 더 인을 설명하면 “대체로 공변되면 어질고 어질면 사랑한다. 효도와 공손함은 그 用이 되고 용서는 그 베푸는 것이다. 知覺함은 바로 知의 일이다”²⁰⁾라고 한 것으로 보아, 仁이 恕와 知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음의 내용을 보자.

또 천지의 마음에 그 덕이 넷이 있으니 元·亨·利·貞이라고 하는데 원은 통솔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이 운행을 하면 춘·하·추·동의 차례로

-
- 17) 李滉, 『退溪集』권7, 「進聖學十圖筭」. “朱子曰：仁者，天地生物之心，而人之所得以爲心。未發之前，四德具焉，而惟仁，則包乎四者。是以，涵育渾全，無所不統，所謂生之性，愛之理，仁之體也。”
- 18) 李滉, 위의 책, 「進聖學十圖筭」. “已發之際，四端著焉。而惟惻隱，則貫乎四端。是以，周流貫徹，無所不通，所謂性之情，愛之發，仁之用也。”
- 19) 李滉, 위의 책, 「進聖學十圖筭」. “專言，則未發是體，已發是用。偏言，則仁是體，惻隱是用。”
- 20) 李滉, 위의 책, 「進聖學十圖筭」. “蓋公則仁，仁則愛。孝悌，其用也，而恕，其施也。知覺，乃知之事。”

되니 봄의 자라게 하는 기운이 어느 곳이든지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란 그 덕도 넷이 있으니 인·의·예·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은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다.²¹⁾

여기서는 천지의 덕은 본래 원·형·이·정 등의 네 개의 덕이 있다. 이 네 개의 천지의 덕을 사람이 받고 태어난 네 개의 덕이 인·의·예·지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體이다. 이와 달리 그 用으로 말하면 “그것이 發하여 用이 되면 愛·恭·宜·別의 정이 되는데 측은이 여기는 마음이 꿩뚫지 않는 것이 없다”²²⁾라고 한 것으로 보아 측은이 여기는 마음인 인이 의·예·지를 통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것을 다음에서 통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대체로 仁의 道라 하는 것은 바로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으로 어느 사물에 나아가든지 존재하는 것이니 情이 아직 發하지 않을 때는 이 體가 이미 갖춰졌고 情이 이미 發하면 그 用이 다함이 없다. 진실로 인의 체를 잘 붙들어서 그것을 존속한다면 모든 선의 근원과 모든 행실의 근본이 여기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 이것은 孔門의 교육이 반드시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仁을 구하는데 급급하게 한 까닭이다.²³⁾

이 글에서는 공자 교육의 이상 실현과 목적이 仁의 體用성을 알고 仁

21) 李滉, 위의 책, 「進聖學十圖筭」. “又曰：‘天地之心，其德有四，曰元亨利貞，而元無不統。其運行焉，則爲春夏秋冬之序，而春生之氣，無所不通。故，人之爲心，其德亦有四，曰仁義禮智，而仁無不包。’”

22) 李滉, 위의 책, 「進聖學十圖筭」. “其發用焉，則爲愛恭宜別之情，而惻隱之心，無所不貫。”

23) 李滉, 위의 책, 「進聖學十圖筭」. “蓋仁之爲道，乃天地生物之心，卽物而在，情之未發，而此體已具，情之既發，而其用不窮。誠能體而存之，則衆善之源，百行之本，莫不在是。此孔門之教，所以必使學者，汲汲於求仁也。”

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이황도 공자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仁의 體用性을 알고 적극적으로 仁을 실천하고자 하는 뜻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율곡 이이는 이황과 달리 주기론을 근간으로 인에 대한 논설을 제기하였으며, 주자의 학설에 편들고 있다.

주자는 말하기를 “하늘의 道가 유행하여 조화롭고 발육하니 무릇 소리·빛깔·모양·형상이 있는 것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들은 모두 사물이다. 이미 이러한 물건이 있으면 그 이러한 사물이 된 까닭이란 것이 각각 당연한 법칙이 있지 않음이 없어,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 용납될 수 없으니 이것은 모두 하늘에서 부여한 것을 얻은 것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지금에 또한 그 지극히 절실하면서 가까운 것으로써 말하면 마음이란 것의 물건 됨이 실은 몸에 주인이다. 그 體에는 인·의·예·지의 性이 있고, 그 用에는 측은·수오·공경·시비의 情이 있는데, 渾然히 마음속에 있으면서 느낌에 따라 응하고 각각 주인이 된 바가 있으니 어지럽게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몸에 갖추어진 것으로 언급하면 입과 코, 귀, 눈, 사지의 작용이 있고 또 다음으로 한 몸에 접촉하는 것으로 언급하면 군신·부자·부부·장유·봉우의 오상이 있으니 이것은 모두 반드시 당연한 법칙이 있어 스스로 그만둠이 용납될 수 없으니 이치라고 이르는 것이다. 밖으로 사람에게 이르면 사람의 이치가 나와 다르지 않다. 멀리 물건에 이르면 물건의 이치가 사람과 다름이 없다. 그 큰 것을 다 말하면 하늘과 땅이 운행하는 것과 옛날과 지금의 변화하는 것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적은 것을 다 말하면 한 티끌의 작은 것과 한번 호흡하는 짧은 순간도 빠뜨릴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상제가 내려준 것의 沍이고 모든 백성이 잡은 것의 疇땀함이다. 유자가 이룬 바 천지의 中이고 공자가 이룬 바 性과 天道이고 자사가 이룬 바 천명의 性이고 맹자가 이룬 바 인의의 마음이고 정자가 이룬 바 天然으로 있는 中이고 張子가 이룬 바 만물의 一源이고 邵子가 이룬 바 道의 형체란 것이다. 다만 그 기질의 淸濁·偏正의 다름이 있고 물욕의 淺深·厚薄의 다름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건과 여진 자가 어리석은 자와는 서로 뚜렷이 다르니 같을 수가 없을 뿐이다.”²⁴⁾

이 글에서 이이는 오상의 體와 用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이 말은 『성학집요』에 나오는 것으로 窮理·用功의 방법에서 주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천리와 인도에 있어서 이치를 궁구하고 공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仁에 대한 견해는 율곡이 퇴계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이황도 공자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仁의 體用性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仁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이황과 이이의 제자들 간에 主理·主氣說로 인한 많은 논쟁을 하였는데 오상 자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었다. 다만 실행하는 방법의 순서 측면에서 먼저하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서 약간 다른 것이 없지 않았지만 상거가 먼 건 아니다. 이황을 따르는 주리파로는 정구, 장현광, 허목, 기대승, 유성룡, 정경세, 이목헌 등이 있으며, 이이를 따르는 주기파로는 김장생, 김집, 최명길, 송준길, 송시열, 권상하, 김창협 등이 있다.

24) 李珥, 『栗谷全書』 권20, 「聖學輯要」. “朱子曰 “天道流行, 造化發育, 凡有聲色對象, 而盈於天地之間者, 皆物也. 既有是物, 則其所以爲是物者, 莫不各有當然之則, 而自不容已, 是皆得於天之所賦, 而非人之所能爲也.” 今且以其至切而近者言之, 則心之爲物, 實主於身. 其體, 則有仁義禮智之性, 其用, 則有惻隱羞惡恭敬是非之情, 渾然在中, 隨感而應, 各有攸主, 而不可亂也. 次而及於身之所具, 則有口鼻耳目四肢之用, 又次而及於身之所接, 則有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之常, 是皆必有當然之則, 而自不容已, 所謂理也. 外而至於人, 則人之理, 不異於己也. 遠而至於物, 則物之理, 不異於人也. 極其大, 則天地之運, 古今之變, 不能外也. 盡於小, 則一塵之微, 一息之頃, 不能遺也. 是乃上帝所降之衷, 烝民所秉之彝. 劉子所謂天地之中, 夫子所謂性與天道, 子思所謂天命之性, 孟子所謂仁義之心, 程子所謂天然自有之中, 張子所謂萬物之一原, 邵子所謂道之形體者. 但其氣質有清濁偏正之殊, 物欲有淺深厚薄之異. 是以, 人之與物, 賢之與愚, 相與懸絕, 而不能同耳.”

2. 義

여기서는 義의 개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의인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義는 옳은 것이다. 예의를 갖춘 행위가 이치로 보아 마땅하다는 것을 말한다. 또는 예의를 갖춘 행위와 어떤 일의 마땅함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설문』에 “義는 자기의 威儀이다. 我를 따르고 羊을 따랐다”²⁵⁾고 했고, 段玉裁 注에 “위의는 자기 몸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我를 따랐다”²⁶⁾고 했다. 동중서는 “仁이란 것은 사람이다. 義란 것은 나이다. 仁은 반드시 사람에게 미쳐가고 의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내린다는 것을 이른다. 羊을 따른 것은 善과 美와 뜻이 같기 때문이다”²⁷⁾라고 했고, 『爾雅釋名』 「釋言語」에 “의는 마땅하게 함이다. 사물의 판정을 내려 합의하게 하는 것이다”²⁸⁾고 했고, 『서경』 「康誥」에 “그 義刑과 義殺을 쓴다”²⁹⁾고 했고, 同傳에 “義는 宜의 뜻이다.”고 했고, 『효경』 「三才章」에 “대체로 효도는 하늘의 經이고 땅의 義이다”³⁰⁾했고, 『논어』 「學而篇」에 “信은 義에 가깝다. 皇侃의 소에 ‘義는 宜의 뜻에 합치한다’”³¹⁾고 했고, 『맹자』 「공손추상」에 “수오하는 마음은 의의 단서이다”³²⁾고 했고, 『순자』 「強國篇」에 “의로 나누면 분명

25) 『說文』. “義, 己之威儀也. 从我从羊.”

26) 段玉裁 注에 “威儀出於己. 故, 从我.”

27) 董仲舒, “仁者, 人也. 義者, 我也. 謂仁必及於人, 義必由中斷制也. 从羊者, 與善美同義.”

28) 『爾雅釋名』, 「釋言語」. “義, 宜也. 裁制事物, 使合意也.”

29) 『書經』, 「康誥」. “用其義刑義殺. 傳, 義, 宜也.”

30) 『孝經』, 「三才章」. “夫孝, 天之經也, 地之義也.”

31) 『論語』, 「學而篇」. “信近於義. 皇疏, 義, 合宜也.”

32) 『孟子』, 「公孫丑上」. “羞惡之心, 義之端也.”

해진다. 주에, ‘義란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을 이른다’³³⁾고 했고, 『揚子法言』 「重黎」에 “일은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을 의라고 이른다”³⁴⁾고 했고, 한유의 『原道』에 “행함에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을 의라고 이른다”³⁵⁾라고 했다.

또한 다른 면에서 義의 글자를 본 것이 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정도로 한다는 것이다. 정도는 사람이 실행해야 할 바른 도리이다. 『釋名 釋典藝』에 “의는 바른 것이다”³⁶⁾고 했고, 『맹자』 「진심하」에 “春秋에는 義戰이 없다. 그 주에 ‘춘추에 기록된 바 戰伐의 일은 王義에 응하는 것이 없다’”³⁷⁾고 했고, 『容齋隨筆』 「人物以義爲名」에 “정도를 세우는 것을 義라 말하는데 義師와 義戰이 그것이다”³⁸⁾고 했다.

또한 다른 의미에서 義字의 뜻을 살펴본다면 의란 平分한다는 말이다. 『공자가어』 「執轡」에 “의로움으로써 하면 나라가 의롭게 된다. 주에 ‘義는 平이다’”³⁹⁾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로써 종합해보면 義는 宜·正·平으로, 이치로 보아 당연하다는 ‘마땅하다’는 뜻과 언행이 규범이나 도리에 맞는 ‘바르다’는 뜻과 판단이나 일처리 따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공평하다’는 뜻 등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우리 민족은 단군이 국가를 개창하고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삼았

33) 『荀子』, 「強國篇」. “分義則明. 注, 義謂得其宜.”

34) 『揚子法言』, 「重黎」. “事得其宜之謂義.”

35) 韓愈, 『韓昌黎文集』, 「原道」. “行而宜之之謂義.”

36) 『釋名, 釋典藝』. “義, 正也.”

37) 『孟子』, 「盡心下」. “春秋, 無義戰. 注, 春秋所載, 戰伐之事, 無應王義者也.”

38) 『容齋隨筆』, 「人物以義爲名」. “杖正道曰義, 義師義戰, 是也.”

39) 『孔子家語』, 「執轡」. “以之義則國義. 注, 義, 平也.”

는데 그 건국이념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 교육법에서 홍익인간을 우리의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단군이 나라를 세운 고조선부터 삼한, 삼국,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內政이 옳지 않고 바르지 않고 공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비정상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차원에서도 옳고 바르고 공평하게 처리할 것을 발의하거나 건의했던 것이다. 또한 국가가 불의에 왜적의 침략을 당했을 때도 국가 차원에서 왜적과 대항했을 뿐만 아니라 시골의 細民들까지도 국가와 민족의 보존을 위해 물자를 제공하고 목숨을 바쳐 싸웠다. 목숨을 바쳐 싸운 의사들은 많이 있다. 고구려 때 양만춘은 안시성에서 당나라 태종과 싸워 물리쳤고, 고려 때 삼별초 군대는 몽고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 의거했고, 임진왜란 때 고경명과 양대사마, 조헌 등은 의병을 일으켰다. 서산대사와 그의 제자 사명당, 영규 등은 승군을 거느리고 왜적과 싸웠다. 특히 영규와 조헌은 금산 전투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했으니 그들이 문헌 칠백의총이 전해온다. 병자호란 때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 활약한 것도 대의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 밖에 한일합방이 체결되었을 때도 의로운 행동을 한 의인들이 여럿이 나왔다. 온 국민들이 강제로 한일합방이 체결된 것에 크게 반발하여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로운 활약을 한 자들은 임시정부를 세워 일본에 대항한 이승만과 김구, 안창호 등을 들 수 있으며, 만주 신흥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한 이동영과 이시영, 국내에서 활약하며 독립선언문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일본에 대항하여 만세를 부른 33인 동지들, 미주에 일본 고문으로 있는 수지분을 저격한 장인환과 전명운의 의거, 유인석, 이강년, 양제안 등의 의

거,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의 활약, 합방교섭 차 일본에 가 있던 민원식을 척살한 양근환, 박렬 등의 행동 등도 의로운 활약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의를 들고 일어난 백성들의 활약상은 낱낱이 들 수 없을 정도이다.

한 국가를 위해 몸 바쳐 활약한 의리는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한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부자간과 형제간에 관한 의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한 국가나 한 가정에 있어서 의로운 행동들은 만고토록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기 때문이다. 부자간과 형제간에 대한 의리의 기록은 『삼강록』과 『명륜록』에 실려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친구간에 의리도 중요하다. 이조 중엽에 있었던 사건으로 “친구에게 거짓말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 시체를 줌 처리해 달라고 하자, 그 때 친구는 어서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보자마자 자기 집 뒤에 땅을 파 묻어주고 모른 채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 의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가혹한 행위로 지금까지도 일러온다.(사실은 사람의 시체가 아니라 돼지고기를 가마니에 싸서 꾸민 것이다.) 서양에서는 혁명을 일으킨 것을 ‘의’라고 하는 반면에 동양에서는 군주를 받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의’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리 관계는 옳고, 바르고, 평등한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동방 예의의 나라라고 일컬어 온 것이니 실로 이름과 내용에 있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표현이다.

3. 禮

여기서는 禮에 대한 개념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본 뒤에 조선시

대 예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는 자기 몸을 닦고 사람과 사귀고 세상과 교제하고 귀신을 섬기고 이치에 맞게 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지켜야 할 儀式과 禮法이다. 이는 情에 근본을 두고서 공경을 주로 삼고 지나친 것은 조절하고 모자란 것은 文飾하여 애써 中正에 합치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外形을 수식하고 內心을 바르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예는 실천해야 할 법칙이다. 『설문』에 “예는 실천하는 것이니 귀신을 섬겨서 복이 이르게 하는 것이다. 示를 따르고 豐을 따랐으며 豐은 또한 소리이다”⁴⁰⁾라고 했다. 徐灝의 『說文解字注箋』에서는 “예는 실천한다는 말이니, 실천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이름이다. 예란 이름은 귀신을 섬기는 것에서 일어났는데 引伸하여 모든 예의를 일컫게 되었다”⁴¹⁾라고 했다. 『중용』에 “예를 논의하지 않는다. 그 주에 예는 사람이 따르고 행하는 것을 이른다”⁴²⁾라고 했다. 『周易』 乾卦에 “文言에 말하기를 ‘禮에, 합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하안의 주에, 예는 交接·會通하는 道이다”⁴³⁾라고 했다. 『예기』 「악기」에 “예는 다른 일들을 공경에 합치하도록 하는 것이다”⁴⁴⁾라고 했다. 『예기』 「문왕세자」에 “예는 外面을 닦는 所以이다”⁴⁵⁾라고 했다. 『예기』 「중니연거」에 “예는 中을 제어하는 것이다”⁴⁶⁾라고 했다. 『예기』 「방기」에 “예란 것은 사람의 情에 인한 것이라

40) 『說文』. “禮, 履也. 所以事神致福也, 从示从豐, 豐亦聲.”

41) 徐灝, 『說文解字注箋』. “禮之言履, 謂履而行之也. 禮之名, 起於事神, 引伸爲凡禮儀之稱.”

42) 『中庸』, 28장. “議禮. 注, 禮, 謂人所服行也.”

43) 『周易』, 「乾卦」. “文言曰 足以合禮. 何晏注, 禮, 是交接會通之道.”

44) 『禮記』, 「樂記」. “禮者, 殊事合敬者也.”

45) 위의 책, 「文王世子」. “禮, 所以修外也.”

46) 위의 책, 「仲尼燕居」. “禮所以制中也.”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節文해 주니 때문에 民坊이 된다”⁴⁷⁾라고 했다. 또 『순자』 「대략편」에 “예는 절차이다”⁴⁸⁾라고 했고, 『한비자』 「해로편」에 “예란 것은 밖을 꾸민 것은 안을 신칙한 까닭이다”⁴⁹⁾라고 했다. 또 『백호통』에 “예란 것은 모자란 것을 채워주고 남는 것은 절제해 주는 것이다”⁵⁰⁾라고 했다. 이로 보아 예는 履·服行·합敬·制中·諭內 등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지만, 요는 마음을 수칙하고 일을 공경하며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 근본은 인간의 性內에 갖춰져 있는 것을 실천한다는 말이다.

둘째, 다른 면에서 본다면 예는 威儀, 또는 作法을 말한다. 사람이 앉고 서고 나가고 물러날 때의 하나하나의 절차와 격식을 갖춘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기』 「內則」의 “疏에, 예는 위의를 이룸이다”⁵¹⁾라고 했다. 『맹자』 「盡心下」에 “거동과 차림새, 일을 해치우는 솜씨가 예에 맞게 하는 것은 성대한 덕이 지극함이다”⁵²⁾라고 했다. 『大戴禮』 「盛德篇」에 “예는 법도와 덕, 법이다”⁵³⁾라고 하여 作法상에서 해석하였다.

셋째,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예는 공경한다. 또는 경의를 표한다는 것으로 보았다. 『예기』 「月令」에 “어진 자는 예로 대접한다”⁵⁴⁾라고 했고, 『呂氏春秋』 「慎大覽」에 “관직을 받는 것을 달게 여기지 않는 자는 그에게

47) 위의 책, 「坊記」. “禮者, 因人之情而爲之節文, 以爲民坊者也.”

48) 『荀子』, 「大略篇」. “禮, 節也.”

49) 『韓非子』, 「解老篇」. “禮者, 外飾之所以諭內也.”

50) 『白虎通』, 「禮樂」. “禮者, 盛不足節有餘.”

51) 『禮記』, 「內則」. “禮帥初. 疏, 禮, 謂威儀也.”

52) 『孟子』, 「盡心下」. “動容周旋, 中禮者, 盛德之至也.”

53) 『大戴禮』, 「盛德篇」. “禮, 度德法也.”

54) 『禮記』, 「月令」. “禮賢者.”

예를 극진히 한다. 그 주에, 예는 공경하는 것이다”⁵⁵⁾라고 했다.

넷째, 또한 국가의 법제를 예라고 한다. 『좌전』 장공 23년에 “예는 백성을 바르게 하는 所以이다”⁵⁶⁾라고 했다. 『說苑』 「修文篇」에서는 “예란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所以이다”⁵⁷⁾라고 했고, 또 『예기』 「중리언거」에는 “예란 것은 이치이다. 그 소에, 이치는 도리이니 예란 것은 만사를 도리에 맞게 하는 것을 말한다”⁵⁸⁾라고 했다. 『예기』 「악기」에 “예란 것은 이치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⁵⁹⁾라고 했고, 『예기』 「악기」에 “예란 것은 天時에 합하고 地財에 베풀고 귀신에 순종하고 인심에 맞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⁶⁰⁾라고 했다. 『좌전』 소공 25년에 “예란 것은 하늘의 법이고 땅의 義이고 백성이 行할 것이다”⁶¹⁾라고 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는 형이상적으로 보면 본래 인성에 갖추고 있는 것으로써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中正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예가 시행된 시기는 고조선 단군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삼국유사』에 “主穀·主命·主刑·主病·主善惡”⁶²⁾이라고 하여 주형을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형이란 모든 옳지 못하거나 비합리적인 일이나 행위를 다스리는 것으로 예에 어긋난 것인가, 어긋나지 않은

55) 『呂氏春秋』 「慎大覽」. “不肯受官者, 其禮之. 注, 禮, 敬也.”

56) 『左傳』, 「莊公 23」. “夫禮, 所以整民也.”

57) 『說苑』, 「修文篇」. “禮者, 所以御民也.”

58) 『禮記』, 「仲尼燕居」. “禮也者, 理也. 疏, 理, 謂道理, 言禮者, 使萬事合於道理也.”

59) 위의 책, 「樂記」. “禮也者, 理之不可易者也.”

60) 위의 책, 「樂記」. “禮也者, 合於天時, 設於地財, 順於鬼神, 合於人心, 理萬物者也.”

61) 『左傳』, 「昭公 25」. “夫禮,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

62) 『三國遺事』 「三聖紀全」 下篇. “主穀主命主刑主病主善惡.”

것인가의 문제를 살피는 것이다. 또 공자는 “중국에서 예를 잃어버린 것을 조선에서 구해 왔다”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우리 조선 즉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예를 시행한 나라라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자 조선 시대에도 八條教를 시행하였는데 그 팔조교 조항이 완전히 남아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며 도둑질을 한 자는 종신토록 노예로 삼는다”라고 하였으니 그 시대의 예를 짐작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삼국이 각자 예법과 律條를 만들어 시행하였다. 특히 신라는 吏坊府格이라는 성문법을 만들었으니 우리나라에 예법이 만들어진 것은 오래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에 고려를 거쳐 조선조에 내려와서는 고조선의 법제를 따라 정부 기관에도 禮部, 또는 禮曹라 하여 예법을 맡아보는 전담기관을 두고 온 나라 백성들의 예에 대한 체도를 掌管하게 되었다. 세종과 세조는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그 후에도 『대전회통』을 편찬하여 조항을 증감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예법은 완전한 하나의 법제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말한 법은 국가에 대한 예법이지만 그 밖에 천자의 예로부터 경대부, 사서인의 예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예법을 만들고서 실천하도록 노력하였다. 冠·婚·喪·祭를 다룬 『사례편람』이 있고 吉·凶·軍·賓의 예도 있었는데 그 실행 방식이나 예절에 관한 규정인 節文은 천리와 誠敬에 기본을 두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학과의 여러 학자들을⁶³⁾ 잠깐 소개하면 먼저 한강 정구를

63)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승이, 『한국의 상례』, 서울 : 한길사, 2010, 1-418

들 수 있다. 그는 한훤 김굉필의 외증손으로 덕계 오건, 남명 조식, 퇴계 이황, 우계 성혼의 문하에 드나들면서 問業을 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五先生禮說』 『禮記喪服分類』 『家禮集覽補注』 『五服沿革圖』 『深衣制度』 등이 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이와 구봉 송익필의 문인으로 예학에 用功이 가장 깊어 예학파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疑禮問解』 『家禮集覽』 『喪禮備要』 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신독재 김집을 들 수 있는데 사계 김장생의 아들이다. 그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以禮爲先이라고 말하면서 “예라는 것은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법칙이다”라고 하였다. 미촌 윤선거는 “대개 항상 말한 것은 예를 잡는 것으로 정밀하여 차착이 없었다. 우리 동방에 儒先이 있는 이래로 선생 두 대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졌으니 더할 것이 없었도다”라고 하였으니 김집을 잘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은 우복 정경세이다. 그는 서애 유성룡의 문인으로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 인현왕후의 복제 문제에 있어 그에 대한 중론을 배제하고 不杖碁를 주장하였는데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에 사계가 “예학이 퇴계보다 나으니 오늘날에 예학을 더불어 논할만한 사람은 우복 정경세 한 사람 뿐이다”라고 일컬었다. 그의 저서에는 『問思錄』 『朱文酌海』 『喪禮參考』 등이 있다. 다음은 동춘당 송준길이다. 그는 사계 김장생의 문인으로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되는데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는 어렸을 때 『史略』을 배웠는데 그 아버지가 “사람에게 不敢欺, 不忍欺, 不能欺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셨다. 이에 아들 송준길은 “嚴威가 있으면 人不敢欺하나니, 이것은 두려워함이요, 仁心이 있으면 人不敢欺하나니, 이것은 심복함이요, 知術이 있으면 人不能欺하나니, 이

쪽.” 참조.

것은 服其明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낫느냐?”고 부친이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不忍者が 첫째요, 不能者が 둘째요, 不敢者が 셋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 보아 우암이 그를 칭찬한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초려 이유태와, 시남 유계도 예론에 밝았다. 또 남계 박세채는 청음 김상헌의 문인으로 예학에 밝았다. 그의 저서로는 『南溪禮說』 『六禮疑輯』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진후하여 예설에 대한 것이 많으나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아무튼 예에 관하여는 대련과 소련이 고대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러한지 우리 민족이 예설에 대해서는 중국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진보하고 또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도 엄연한 것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4. 智

여기서는 智의 字意를 검토·분석하여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는 그 의미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知는 아는 것이다. 말이 입으로 나와서 얻은 것으로 內心の 인식이다. 『說文』에 “知는 차지하는 것이다. 口와 矢를 따랐다”⁶⁴⁾라고 했다. 『段玉裁注』 白部에 “지는 識사하는 것이니, 白을 따르고, 弓을 따르고 知를 따랐다. 살펴보건대 이 사의 위에 또한 識字가 있음이 마땅하니, 知와 智와 뜻이 같다. 그러므로 智를 知로 하였다”⁶⁵⁾라고 했다. 이로 보아 知와 智는 뜻이 같은데, 智

64) 『說文』 “知, 사也. 從口矢.”

65) 『段玉裁注』 白部 “知, 識사也. 從白, 從弓, 從知. 按此사也之上, 亦當有識字, 知智義同. 故智作知.”

는 본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지로써 선천적인 智이다.

둘째, 이와 달리 智는 ‘알다’, ‘인지한다’는 뜻으로 후천적인 智도 있다. 예를 들면 『옥편』에 “知는 아는 것이다”⁶⁶⁾라고 했고, 또 『대학』에 “그러므로 좋아하면서도 그 악함을 안다. 그 疏에 知는 앎이다”⁶⁷⁾라고 했다. 『중용』에는 “비록 성인이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⁶⁸⁾라고 했고, 『논어』 「현문편」에는 “나를 아는 자는 그 하늘일 것이다”⁶⁹⁾라고 했다. 또 『集韻』에 “知는 어떤 경우엔 覺이라고도 말한다”⁷⁰⁾라고 했다. 이것은 모두 본래적인 知가 아니라 후천적인 知인데 앞의 지는 형이상적인 지라면 이 지는 형이하적인 知이다.

『맹자』 「盡心章句上」에서 말한 “사람이 배우지 않고서도 잘하는 것은 良能이고 생각하지 않고서도 아는 것은 良知이다”⁷¹⁾라고 했다. 또 주자는 『대학』 「격물치지장」에서 “대체로 사람의 마음의 신령스러움이 앎이 있지 앎음이 없다”⁷²⁾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선천적인 지를 말한 것이다. 반면에 『대학』 「격물치지장」에서 “천하의 물건이 이치가 있지 앎음이 없건만 오직 이치에 대하여 아직 모두 궁구하지 못한 까닭에 그 앎이 다하지 못함이 있다”⁷³⁾고 하였으니 이는 후천적인 지를 말한 것이다. 이로 보

66) 『玉篇』. “知, 識也.”

67) 『大學』. “故, 好而知其惡. 疏, 知, 識也.”

68) 『中庸』. “雖聖人, 亦有所不知焉.”

69) 『論語』, 「憲問篇」. “知我者, 其天乎.”

70) 『集韻』. “知, 或曰覺也.”

71) 『孟子』, 「盡心章句上」. “孟子曰: ‘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72) 『大學』, 「格物致知章」. “蓋人心之靈, 莫不有知.”

73) 위의 책, 「格物致知章」. “而天下之物, 莫不有理, 惟於理, 有未窮, 故, 其知, 有不盡也.”

아 본래적인 知에 후래적인 知를 보강해야만 완전한 知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이 知에 대해서는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전래한 이후로 經書의 知와 주자의 知를 그대로 준수하였다. 그렇지만 다산 정약용이 말한 바, 物·知·意·心·身·家·國·天下는 物에 해당되고, 格·致·誠·正·修·齊·治·平은 事에 해당된다고 한 의견은 주자가 鄭玄이 物은 마치 일과 같다고 한 것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다산의 탁견이라고 할만하다. 예로부터 知에 대하여 성현들이 여러 학설을 언급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이만 줄이기로 한다.

5. 信

여기서는 信의 字意를 검토·분석하여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信은 질실한 것, 誠信한 것, 믿음이 있는 것 등으로 풀이한다. 『설문』에 “신은 성실이다. 人과 言을 따랐다”⁷⁴⁾고 했고, 『周易』 「繫辭上」에 “사람이 돕는 것은 믿어서이다”⁷⁵⁾고 했다. 『周禮』 「地官 司市」에 “質劑로서 믿음을 맺어 송사를 그치게 한다고 한 疏에 해석하기를 “질체는 券書を 이르니 백성이 믿음을 잃어 저버리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서이다. 그러므로 券書を 만들어 약속을 맺어 믿음이 있게 하였다. 백성의 獄訟이 있는 것은 본래 신용이 없어 말미암은 것이니 이미 믿음을 맺었으면 송사는 없다. 그러므로 송사를 그치게 한다고 이른다”⁷⁶⁾고 해석했다.

74) 『說文』. “信, 誠也. 从人言.”

75) 『周易』, 「繫辭上」. “人之所助者, 信也.”

76) 『周禮』, 「地官 司市」. “以質劑結信而止訟. 疏, 釋曰: ‘質劑, 謂券書, 恐民失信, 有所違

『論語』「學而篇」에 “붕우와 사귀에 신의가 없겠는가? 소에, 붕우와 사귀을 맺고서 誠信치 아니할 수 있겠는가?”⁷⁷⁾라고 했다. 『春秋左傳』 애공 14년에 “서쪽으로 사냥 가서 기린을 얻었다. 복건의 주에, 土가 信이 된다”⁷⁸⁾고 했고, 『맹자』「공손추상」의 四端의 集註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주자가 생각하건대 四端의 信은 五行의 土와 같으니 定位가 없고 成名이 없고 專氣가 없지만 水·火·金·木이 이것을 기다려서 생기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土는 四行에 존재하지 아니함이 없고 또 四時에서는 王에 부친다. 그 이치가 또한 이와 같다.⁷⁹⁾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五行과 사시에 빠짐없이 신이 포함되어 있고, 오상의 인·의·예·지에도 신이 편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이 없으면 五行과 사시, 오상이 될 수 없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국가나 학자, 백성들 간에 신에 대한 깊은 신념이 있었으니 누구나 신조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삼국사기』「평원왕조」에 나타난 신의를 보기로 한다.

고구려 평강왕의 딸이 어렸을 때 울기를 잘 하였다. 임금이 희롱하여

負. 故, 爲券書結之, 使有信也. 民之獄訟, 本由無信, 旣結信則無訟. 故, 云止頌也.”

77) 『論語』, 「學而篇」. “與朋友交而不信乎? 疏, 與朋友結交, 而得無不誠信乎?”

78) 『春秋左傳』, 「哀公 14」. “西狩獲麟. 服注, 土爲信.”

79) 『孟子』, 「公孫丑上」, 四端, 集註. “愚按, 四端之信, 猶五行之土, 無定位, 無成名, 無專氣, 而水火金木, 無不待是以生者. 故, 土, 於四行, 無不在, 於四時, 則寄王焉. 其理, 亦猶是也.”

“너는 늘 울기만 하여 나의 귀를 요란스럽게 하니, 커서도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가 될 수는 없고,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야 되겠다”고 했다. 임금의 늘 이야기 하더니, 평강공주가 자라 16세가 되었을 때 임금은 그를 상부의 고씨에게 시집보내려 하였다. 공주는 대답하기를 “대왕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꼭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하시더니 지금 무슨 까닭으로 먼저 하신 말씀을 고치려하십니까? 필부도 오히려 식언을 하려고 하지 않는 데 더군다나 나라의 지존이신 임금이 식언을 하십니까?”⁸⁰⁾

이 글은 임금이 희롱하여 바보 온달에게 공주를 시집보낸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공주가 커서 시집갈 때가 되어, 고씨에게 시집보내려 하니, 공주는 임금께 약속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한다. 이는 왕과 공주 사이에도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음의 내용은 정조 때 있었던 일이다.

흥기섭이 젊어서 집안 살림이 아주 가난하더니 하루는 일찍이 여자종 아이가 뛰어와 일곱 냥 돈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 물건이 솔 안에 있으니 쌀이 몇 섬을 살 수 있고 나무 몇 바리를 살 수 있으니 하늘이 내려준 것이요, 하늘이 내려준 것입니다”라고 했다. 공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이것이 어디서 난 돈이냐?”하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라는 글을 써서 대문 위에 붙이고 기다렸다. 이윽고 劉씨 성을 가진 자가 찾아와 그 글씨를 써 붙인 뜻을 묻거늘, 공이 사실대로 말하였다. 유씨가 말하기를 “돈을 남의 솔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없으니 하늘이 준 것입니다. 어찌서 돈을 갖지 아니 합니까?”라고 하였다. 공께서 말하기를 “내 물건이 아니니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했다. 유씨가 엮드려 말하기를 “소인이 어젯밤 솔을 훔치러 왔다

80) 『三國史記』, 「平原王」. “平岡王少女兒好啼. 王戲曰: ‘汝常啼聒我耳, 長必不得爲士大夫妻, 當歸之愚溫達.’ 王每言之, 及女年二八, 欲下嫁於上部高氏. 公主對曰: ‘大王常語, 汝必爲溫達之歸, 今何故改前言乎? 匹夫, 猶不欲食言, 況至尊乎?’”

가 도리어 가세가 매우 쓸쓸함을 보고 돈을 놓고 왔더니 이제 공의 청렴한 생활에 감동하고 양심이 스스로 생겨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기로 하고 항상 공의 옆에서 모실 것을 맹세하였으니 염려 마시고 가지십시오”라고 했다. 공께서 바로 돈을 돌려주며 말하기를 “네가 선량한 백성이 된 것은 좋으나 돈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고 끝내 받지 않았다. 뒤에 공은 판서가 되었고 그 아들 재룡이 현종대왕의 국구가 되었으며 유씨도 또한 신의를 보여서 몸과 집안이 크게 번창하였다.⁸¹⁾

이 내용은 청렴하게 살아가는 홍기섭의 생활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솔을 훔치러 온 유씨는 그의 청렴한 생활에 감동되어 솔 안에 돈을 넣고 떠났지만 잃어버린 돈 주인을 찾아 돌려주고 있다. 그 뒤에 홍기섭은 판서가 되었고 그 아들은 국구가 되었으며, 유씨도 신의를 지켜서 자신과 가문이 번창하였다. 신의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오행과 사시, 오상에도 믿이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 없으면 오행과 사시, 오상이 될 수 없으며, 국왕이나 백성들 간에도 신의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인 것으로 생각된다.

81) 『明心寶鑑』, 「孝行篇(續)」. “洪基燮, 少貧甚無料, 一日早, 婢兒踊躍獻七兩錢曰: ‘此在鼎中, 米可數石, 柴可數馱, 天賜天賜.’ 公, 驚曰: ‘是何金?’ 卽書失金人推去等字, 付之門楣而待. 俄而姓劉者來, 問書意, 公, 悉言之. 劉曰: ‘理無失金於人之鼎來, 果天賜也. 盍取之?’ 公, 曰: ‘非吾物, 何?’ 劉俯伏曰: ‘小的, 昨夜, 爲竊鼎來, 還憐家勢蕭條而施之, 今感公之廉價, 良心自發, 誓不更盜, 願欲常侍, 勿慮取之.’ 公, 卽還金曰: ‘汝之爲良則善矣, 金不可取’, 終不受. 後, 公, 爲判書, 其子在龍, 爲憲宗國舅, 劉亦見信, 身家大昌.”

Ⅲ. 結論

이로써 오상의 개념의 어원과 의미, 철학, 윤리적 측면, 역사적 측면을 통해 오상의 확대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구명해 보았다. 땅의 동서와 시의 고급과 인의 흑백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오상을 실천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이것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에 불과할 것이다. 이 여덟 가지를 잃어버린 사람을 중국에서는 忘八이라고 하여 큰 치욕으로 여긴다.

仁義란 인과 의를 말하는 것이다. 인의는 도덕이라고도 한다. 인의는 오상의 덕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되므로 轉移되어 도덕이란 개념으로 쓰인다. 『맹자』 「양혜왕상」에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은 어찌 반드시 이로우를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고 한 그 集註에, 인은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이치이다. 의는 마음의 제어함이고 일의 마땅하게 함이다”⁸²⁾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공자가 仁을 말한 반면에 맹자는 仁義를 아울러 말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유교가 전래된 이래로 인의에 관한 것은 바로 도덕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조정으로부터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인의를 교도하고 인의를 신봉하였던 것이다. 앞서의 仁과 義의 장에서 자세히 논한 바와 같이 그 개념 하에 예·지·신도 포괄하여 논의하였는데 실은 性·心·情에서 발동하여 나온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실현시키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21세기를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큰 과제라고 아니

82) 『孟子』, 「梁惠王上」. “孟子 對曰：‘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 集註，仁者，心之德，愛之理。義者，心之制，事之宜也。”

할 수 없다. 이 효제·충신과 예의·염치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인을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할 것인가?”⁸³⁾라고 한 공자의 말과 같이,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이 인의를 실천해 나간다면 바로 군자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아무튼 국민들이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대동세계와 천하태평을 이루려고 기약한다면 남북통일도 스스로 얼음 녹듯이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더욱이 유학의 仁義禮智와 修己治人과 같은 덕목은 동아시아의 가치와 정신문화로써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해 주고 명쾌한 해답을 줄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명충돌과 환경파괴와 같은 거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지역갈등과 빈부격차, 노사문제, 교육문제, 인권유린 등의 미시적인 문제에도 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五倫行實圖』

『漢書』

『白虎通』

『小學』

『宋書』

83) 『論語』, 「顏淵章」. “爲仁, 由己, 而由人乎哉.”

『左傳』
『三國史記』
『聖學輯要』
『聖學十圖』
『爾雅釋名』
『書經』
『孝經』
『論語』
『荀子』
『明心寶鑑』
『揚子法言』
「原道」
『孟子』
『孔子家語』
『容齋隨筆』
「徐灝箋」
『中庸』
『周易』
『禮記』
『韓非子』
『呂覽』
『說苑』
『周禮』
『國語』
『莊子』
『管子』
『史記』
『墨子』

『淮南子』

『新書』

『桓檀古記』

『韓國文集叢刊』

2. 논저

양승이, 『한국의 상례』, 서울 : 한길사, 2010, 1-418쪽.

이현창, 「오상의 도덕교육적 성격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논문, 2002, 1-106쪽.

Abstract

A Study on Osang

Yang, Seung-Yi

Ohsang (the five constant virtues) is the five kinds of duties to be adhered to by man as Confucian ideas. *Ohsang* is the underlying ethics forming the groundwork of loyalty and filial piety as the same meanings to Confucian *Ohryun*.

In the present age humanity and morality fall to the ground, it can be said that virtues and values putting loyalty and filial piety into practice must be one of the greatest tasks of the people living in the 21st century.

We must be charged with a mission of great importance of recognizing and adhering to *filial piety, brotherly love, loyalty, faith, propriety, righteousness, integrity and shame*. As Confucius, he said "Is it come from me or man to practice benevolence?," if it is our mission to practice benevolence and we do so, we will be called as the prima land of gentleman in the world.

Anyway, if the people press on harder for unity world and peace in the world with the spirit of "Can Do," Korean reunification can be accomplished naturally as if ice melts. Osang should be adhered to by everyone for all times and places as well as the skin color. If not so, man will be a mere animal not knowing from nothing. In China, a person who losses the eight of *filial piety, brotherly love, loyalty, faith, propriety, righteousness, integrity and shame* is called as '*forgetfulness of eight (忘八)*,' which is regarded as indelible disgrace. Mentioned above Confucian Osang is recognized as a universal human value of East Asian values and spiritual culture because the virtues, such as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wisdom and character-building and ruling the world will suggest a solution available to the clash of civilizations, Environmental destruction, Human rights abuses, Regional conflict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labor problems and educational issues.

Key Word

Ohsang: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Wisdom, Sincerity and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 논문투고일 : 2014.12.29 심사완료일 : 2015.2.13 게재결정일 : 2015.2.14